

수행은 '무한의 자아' 찾는 과정

박석교수, 세계 각국의 종교 수행법 비교 분석

불교의 전통 수행법과 요가와 탄트라, 유교와 도교의 수행법, 유대인의 하시디즘, 가톨릭의 묵상 및 관상, 이슬람의 수피즘 등 세계 각 종교의 수행법을 비교분석하고 장단점을 검토해 수행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 模範)을 제시하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불교사회연구소 상임이사 박석교수(상명여대 종교학과)는 "개달음과 그것을 얻기 위한 수행 방법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어떤 경우에는 서로 상충되기도 해서 개달음을 구하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서로 대립하게도 만든다"며 세계각국의 종교들이 제시하는 수행법을 비교분석, 9월중에 책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수행자나 나

름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지나친 주관성 속에서 정상적인 삶과는 너무 괴리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자신과 남의 건전한 삶을 파괴하기도 한다는 것이 그의 우려였다.

"보편성과 객관성을 추구하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공(時空)의 제약을 넘어 무한성과 전체성을 갖는 '개달음의 세계'도 언어나 형식으로 표현될 때에는 자연지리적·역사적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기에 "개달음은 하나이지

라는 깨달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제시한다. 본래 자성(自性)은 없지만 분명히 실재하는(眞空妙有) 유한한 나를 형성하는 인연의 끈들을 점점 풀어 무한성으로 가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이다.



박석교수

라고 말하는 그는 세부적인 수행법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며 놓기 △욕망을 충족시키며 놓기 △고통을 직시하며 놓기 △관념을 정리하고 놓기 등과,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욕망과 마음의 이완 △고쳐나가기(자신의 단점, 대인간의 갈등, 현실사회의 왜곡) △넓혀나가기(글쎄이 배우기, 남을 인정하기) 등을 제시한다.

김재경 기자

'세상 사랑하자' 등 보편적 원리 추출 방법다양 혼란·대립·건전한 삶 파괴

만 그곳에 이르는 방법은 천차만별"이란 공식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박교수는 수행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하나로 "진정한 깨달음은 어떠한 것에 대한 얽이나 상대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

그는 "개달음의 완성(成佛)은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물"이라고 주장한다.

"여러가지 구체적인 방법 보다는 삶의 태도를 중시하는 것이 새로운 수행의 패러다임"이

김재경 기자

회암사 4사자 석탑

유교계 출가 비판에 대응 불교의孝敬신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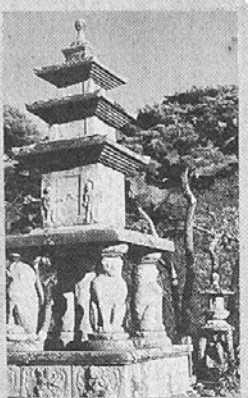
김주성씨 논문서 밝혀

통일신라에 이르러 유학의 세력이 차츰 신장되면서 불교도의 출가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이에 대한 불교측의 대답이 바로 4사자석탑의 건립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주성씨(전남대 강사)는 최근 <한국사상사학보> 제18호에 게재한 '회암사 4사자석탑 건립 배경'이란 논문을 통해 효와 출가의 갈등을 중심으로 전남 구례 회암사 4사자석탑(국보 제35호)의 건립

배경을 분석했다. 김씨는 논문에서 "신라 경덕왕대의 호자이자 의상계 화엄종 계통의 인물인 연기법사(緣起法師)가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화엄경 사경을 하였으며, 이를 보편하기 위해 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4사자석탑을 건립했다"고 주장했다.

4사자석탑은 중앙에 있는 인물이 불법을 수호하는 4마리 사자와 함께 불사리를 받들고 있는 공덕으로 인해 천상에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석탑 앞에는 석등



구례 회암사의 4사자석탑

을 세워 그안에 인물상(연기법사)을 조각해 석탑을 공양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게 하고 있다. 결국 연기법사는 불사리가 보관되어 있는 석탑과 부모님을 동시에 공양하고 있다는 것.

'역주 고승비문 고려편 2' 가산불교문화원 발간

그동안 난해한 한자와 문구에 막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역대고승들의 비문(碑文)을 최초로 교감(校勘: 교정·감수)하고 역주(譯註)하여 불교사상과 한국학 연구의 1차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한 불교교역학의 최초 한글 역주본 시리즈 중 3번째인 <교감역주역대고승비문(歷代高僧碑文)> 고려편2가 나왔다.

신라편, 고려편1에 이은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의 3번째 불교교역학 번역서인 이 책은 연구원의 '한국불교교역학 강좌'에서 지관스님이 강의

한 내용 중에서 고승들만의 비문을 다시 다듬고 원문에 교정주(校正註)를 붙여 역주했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29일

"한국불교미술 바탕은 화엄사상"

강우방씨 밝혀

중국 일본 등과는 달리 독자적인 면모를 보였던 한국불교미술이 화엄사상과 화엄신앙을 배경으로 성립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강우방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가산학보(제4호)>에 발표한 논문 '한국의 화엄미술론'에서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에 걸친 건축·회화·조각·공예 등 불교미술의 각 장

오후3시 연구원 강당에서 제5회 가산학술상 시상 및 출간기념회를 갖는다. (02)765-9602~3.

르를 화엄사상과 화엄신앙과의 관련을 통해 고찰했다.

특히 지난해 석굴암이 고대인도의 비례이론에 따라 건축했다는 논문을 발표했던 강실장은 이 논문에서 석굴암을 화엄사상의 중심개념인 연기와 원융(圓融)의 개념을 총체적으로 나타낸 미술품이라고 강조했다. 강실장은 또 고려와 조선시대에 걸쳐 유행했던 '수월(水月)관음도'를 화엄경의 입법계품(入法界品)을 표현한 것으로 보았다.

"삼라만상 마음이 지은 것" 설법

종 각

若人欲知(약인욕지)
三世一切佛(삼세일체불)
應觀法界性(응관법계성)
一切唯心造(일체유심조)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완전히 알고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性)을 보라

모든 것이 마음이 지은 것이니.

해설

지사 종각의 주련이 담고 있는 이 구절은 <대방광불 화엄경>의 요체이다. <화엄경> 자체도 매우 경묘한 경언이지만 여기에 나오는 '일체유심조'는 불교에 조급한 관심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흔하게 쓰는 용어이다. 그 뜻은 '모든 것이 마음이 지은 것'이란 것으로 원효대사가 당나라로 건너 온 중 아홉 살 때 목이 말라 해골 바가지로 물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일체유심조의 도리였다가 얘기는 너무도 유명한 것이다.

아름다운 이 4구절의 내용은 세상의 모든 일은 마음에

의해 지어 진다는데 뜻깊게 맞춰져 있다. 그 의미를 알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번째 구절의 관(觀)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관은 '본다'의 의미이지만 산이나 자동차등 사물을 보는 것과는 다르다. 이 경우는 견(見)의 의미가 강하다.

그러나 '관'의 의미는 사물을 직접 형태로 본다는 것 보다는 사물의 성질이나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등을 살펴서 안다는 쪽에 가깝다. 형이상학적인 의미인 것이다.

때문에 '응관법계성'은 법계의 성품(성질)을 살펴서 확실하게 인

지한다는 의미로 풀이해야 무리가 없다.

다시말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개념과 사방, 팔방, 사방등 공간적인 개념을 두루 포함한 법계의 성품(성질)을 두루 깨달고 보면 모든 것이 마음에 의해 지어 진다는 것이 이 주련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 구절은 조석에 불시 '종송(鐘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안동 경안중 교사)



한국 사찰의 주련

잡초도 불성이 있는데 왜 뽑는지

문 집에서 화단을 가꾸다가 잡초가 있길래 뽑아버렸습니다. 그때 불침듯 초초나 잡초가 다같이 불성을 지닌 것인데 어느 것은 뽑고 어느 것은 기르느냐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둘이 아니라고 하는데 꽃은 가꾸고 잡초는 뽑아야 하는지요? (최화순·강원 속초시 금호동)

답 가림 내가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가는데 타는 곳은 시밭지일테고 내리는 곳은 초창지일테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경우는 안된다 하겠습니까? 타는 것도 내리는 것도 다 법입니다. 이렇듯 저렇다 구별없이 그냥 타고 내렸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타는 곳에서 내리는 사람이 있고 내가 내리는 곳에서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타고 내리는데 어떤 것은 된다, 어떤 것은 안된다 하겠습니까? 타는 것도 내리는 것도 다 법입니다. 이렇듯 저렇다 구별없이 그냥 타고 내렸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듯이 기르는 것도 법, 뽑는 것도 법입니다. 말하지만 뽑는다 기른다는 것이 본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뽑아 버리게 그냥 버리게 아니라 내렸다가 다시 타듯이 다시 꽃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음으로 무엇을 주었다고 할 때에도 혼자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육신 속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있는데 '나 혼자'라 하겠습니까?

본래 자기가 했다 라고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이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그렇다고 내가 하니까 없으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붙잡지 않는다는 순수한 마음이 좋은 것입니다.

절에 시주를 할 때도 돈이 많은 사람이야 관용했지만 '시주하면 적어도 얼마 정도는 해야 하는데' 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생각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돈이 있고 없고를 자기 주처에서 잘 알고 있으니 주처에 다 맡기세요. 얼마를 시주해야 한다는 생각도 그 자리에서 나온 것이고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도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걸리지 마세요. 그저 '내가 한다'는 생각없이, 이것 또한 마음 공부의 재료가 됐구나 하면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통장을 여러개나 갖고 있으면서도 남편이 중병을 앓는데도 시주하기를 아끼워 하더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공부를 가르칠 요량으로 효행을 처준 일이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어느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까?

지상삼담

길은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성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시고요.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삼담은 조계종 한마음신문 대학생스담에 묻고 답을 통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내가 무심으로 잡초를 뽑아버렸을 땐 벌써 내 마음과 더불어 아름다움으로 하나 된 것이니 그 잡초는 꽃으로 화해서 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 순간에 볼 때는 그게 잡초고 꽃이고 하지만 잡초도 잡초대로 그냥 있지않고 들고 도는 것입니다. 녹슨 쇠가 용광로에 들어 갔다가 재성되어 나오듯이 인간도 고정된 모습대로 있지않고 변화를 거듭합니다. 세상만물이 다 그러합니다.

봄비가 대지를 적시니 온갖 수목이 다 빛물을 먹고 삽니다. 마음은 그렇습니다.

시주한다고 미리 정해 놓지도 말고 얼마했다고 내세우지도 말고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또 적게했다고 걱정하지도 말고 많이 했던 산 아까워 하지도 마세요. 재갈 주고 물건 산 경우와 같이 준 사이도 없어야 참된 시주입니다.

'보시가 쓰레기값'이란 생각은

문 얼마전 하도 속상하는 일이 있어서 부처님 전에 시주라도 해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은 액수지만 보시를 하고 돌아서는데 이번엔 '아하 이게 쓰레기 값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령된 생각은 아닌지요? (김이순·경북 경주시)

마음공부에도 진도가 있습니까

문 불법공부를 하는 도반 중에는 이 공부를 시작한 후에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실감한다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또 원기를 미리 예감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공부에도 진도라는 게 있는지요? 있다면 자신이 그것을 측정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황경수·서울 서초구 우면동)

답 얼마전 하도 속상하는 일이 있어서 부처님 전에 시주라도 해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은 액수지만 보시를 하고 돌아서는데 이번엔 '아하 이게 쓰레기 값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령된 생각은 아닌지요? (김이순·경북 경주시)

답 이 공부에 진도가 없다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났다는 말도 없겠네요. 부처님은 공중에서 푹 떨어진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분의 경우 세세생생 공부에 진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부처님이 되셨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기 정진면에선 완전하다 할 수가 없지요. 그러기에 부지런히 닦아라, 정진하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것은 바로 인간완성, 즉 먹고 먹히면서 예까지 온 여러분들에게 더 진화하여 완성의 길에 이르러고 애쓰신 것입니다. 학교공부를 열심히 하다보니 안풀리던 수학문제가 풀리듯이 이 공부에도 스스로 체험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람결에 서서 길을 묻는 여인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준 부처님의 메시지

온세상이 눈부시도록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여자가 되는 방법! 겸손한 부자가 되는 비결!

석·존·의·육·소·리·에·귀·기·울·여·보·심·시·오

부처님과 여성들

기구한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 새롭게 비극으로 태어난 여인들의 소실같은 삶과 구도의 이야기 여인들의 다정한 가슴과 슬픔을 어루만지는 석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 안에 진실로 아름다운 여인이 되는 법과 참다운 부자가 되는 비결. 그리고 여인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벗고 사바세계를 행복으로 살아가게 하는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최초의 여성불교 비유메타리

데리가타 붓타차리타 등경전 속의 여성실록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 2동 320 개원빌딩

문의 5290140-5 팩스 5792312

성어출판 TEL 778-6876-7 FAX 778-6828

42장경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2.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각돌

42장경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인도의 불교 스승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모아 42편의 시로 묶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대단히 방대하고 난해한 반면에, 42장경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붓다의 42장경을 항목마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소의 명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농담, 재치 있는 우화를 곁들여 쉽게 읽을 수 있는 걸작이다.

내가 도를 지켜 큰 자비를 행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일부러 찾아와 나를 비난했다. 그러나 내가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았더니 그는 비난하기를 그쳤다.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이 이웃에게 선물을 가지고 갔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욕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당신은 그 욕을 자신에게 한 것이다." -본문 중에서-

붓다가 되시려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보석을 준다면 평소 그대 재물을 탐했기 때문이고, 웃음을 준다면 그대 다른 사람을 늘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을 그대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대가 붓다가 이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소 리치씨 강의 / 황경수 이강욱 옮김
신국판 222쪽 / 라면 7500원